

VC구문에 대한 인지문법적 해석

남양우 · 오유정*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선행연구 분석
3. 원형범주이론과 VC구조
4. VC구조의 다의성 및 동기화
5.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吃饱, 打破, 听懂’ 등은 중국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동결식(动结式)이라고 부르며, 동결식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동작-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동결식은 술부구조의 하위 구조로서, 화자는 동결식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결식이란 용어는 의미를 중심으로 붙인 명칭이다. 이것을 구조를 중심으로 나타내면 VC구문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사와 그에 대한 보충내용인 보어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²⁾

* 경남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주저자),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교신저자)

1) 본고에서의 VC구문은 ‘进来’, ‘下去’와 같은 ‘동사+방향보어’의 구조와 ‘累死了’, ‘好极了’와 같이 형용사가 V를 충당하는 ‘得’ 없는 정도보어 구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예문 (1), (2)는 范晓(1985:64)에서 재인용. 예문(3), (4)는 王红旗(1996:25)에서 인용.

- (1) 我今天午饭吃多了。
나는 오늘 점심 밥을 많이 먹었다.
- (2) 你衣服穿少了吧?
옷을 얇게 입은 거 아냐?
- (3) 我今天起来晚了, 没有赶上头班车。
난 오늘 늦게 일어나서 첫차를 타지 못했다.
- (4) 这套题出难了, 学生准做不好。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잘 풀지 못 할 것이다.

예문에서의 ‘吃多, 穿少, 起来晚, 出难’은 VC구조이지만, 그 의미는 ‘동작-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范晓(1985)는 예(1)과 (2) ‘吃多’, ‘穿少’의 보어 ‘多’와 ‘少’가 ‘정도(程度)’를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王红旗(1996)는 예(3)과 (4) ‘起来晚’, ‘出难’의 보어 ‘晚’과 ‘难’이 ‘평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실제로 예문 (1)-(4)의 ‘吃多, 穿少, 起来晚, 出难’을 ‘동작-결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때, VC구조를 동결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VC구조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소한 ‘결과’, ‘정도’, ‘평가’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연구의 분석을 통해, VC구조에 대한 기존 분류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기존연구의 주요 문제점은 VC구조를 의미에 따라 삼분, 혹은 사분하여 모든 VC구조를 이 범위 안에 넣어서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일부 VC구조의 의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VC구조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진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지문법의 원형범주이론을 적용해 중국어 VC구조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VC구조의 의미는 삼분 혹은 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형범주화되어 있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한편, VC구조를 세 개, 혹은 네 개로 분류한 기존연구나 VC구조가 원형범주화되어 있다는 본고의 주장은 모두 VC구조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본고는 구문문법에 근거하여 VC구조의 다의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³⁾은 언어가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하나의 구문은 구문형식과 구문의미를 가지며, 구문의미는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의 생산력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언어형식으로 무한에 가까운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본고는 VC구조를 하나의 구문으로 가정하고, 구문다의성을 통해 VC구조의 다의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2. 선행연구 분석

먼저 동결식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자. ‘동결식(动结式)’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1980년대 吕叔湘(1980)이다. 그에 따르면 동결식은 동사에 결과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동사가 결합된 것이다. 吕叔湘은 VC구조에서 C가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이후 동결식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었다.

문제는 적지 않은 경우, VC구조에서의 동사와 보어의 관계가 ‘동작-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施春宏(2008)은 ‘买贵, 教深, 睡迟, 看久’ 등을 모두 동결식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의 의미 관계를 ‘동작-결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예는 동결식에 관한 여러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동결식이라는 용어와 그 대상 간에 논리적 문제점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王红旗(1996)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동결식의 동사와 보어 부분을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는 전통적 관점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태식 술보구조(状态式述补结构)’, ‘평가식 술보구조(评价式述补结构)’, ‘결과식 술보구조(结果式述补结构)’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또 동결식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존의 동결식

3) 구문문법은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본고에서의 구문문법은 이 중 Goldberg(1995, 2006)의 구문문법을 말한다.

을 ‘动结关系’, ‘动趋关系’, ‘动度关系’, ‘动态关系’로 구분한 范晓(1985) 역시 王红旗(1996)의 견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역시 그 분류체계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范晓(1985)는 VC구조를 V와 C의 의미관계에 따라 ‘动结关系’, ‘动趋关系’, ‘动度关系’, ‘动态关系’로 구분하였다. 动结关系에서 V는 동작, C는 결과를 나타내며, 널리 알려진 동결식이 이에 속한다. 动趋关系의 V는 동작, C는 방향을, 动度关系의 V는 동작, C는 동작의 정도를 묘사하거나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动态关系에서 V는 동작, C는 V의 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范晓 분류는 분류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动结关系, 动趋关系, 动度关系의 C가 V 동작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 방향,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动态关系의 C는 V 동작에 ‘끝점’을 부여하며 동작 ‘완성’의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 즉, 분류를 함에 있어 실질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范晓 본인도 动态关系의 C는 다른 부류와 달리 어휘 본연의 의미가 아닌 파생되고 허화된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어 그 분류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马真, 陆俭明(1997)은 VC구조를 의미에 따라 (A)预期结果的实现, (B)非理想结果的出现, (C)自然结果的出现, (D)预期结果的偏离의 4가지로 나누었는데,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모호하다. 때문에 주관적 성격이 강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马真, 陆俭明(1997)은 “这孩子变坏了”를 (C)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C)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 “染红了”같은 경우는 (A)로 분류하면서, “变红了”는 (C)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물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붉은색으로 변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으며, 붉게 변한 것이 자연적 결과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王红旗(1996)는 VC구조의 보어 부분을 그 의미에 따라 상태보어(状态补语), 평가보어(评价补语), 결과보어(结果补语)로 삼분하였다.⁴⁾ 그는 VC구조

가 결과보어 혹은 동결식이라고 불리는 것에 회의적이었으며, VC구조의 보어 의미를 '결과'로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VC구조의 보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삼분법을 제시하였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상태보어는 동작 혹은 변화로 야기된 사람이나 사물의 새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范晓(1985)의 '动结式'와 같다. 상태보어는 다시 새로운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①사람 혹은 사물의 외부상태, ②사람의 심리감각, ③사람 혹은 사물의 소실, ④경쟁의 결과 그리고 ⑤동작 출현의 새로운 상태로 구분된다. 평가보어는 동작결과나 수동자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며, 范晓(1985)의 '动度式'와 같다. 마지막으로 결과보어는 동작이 결과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见, 住, 着, 到'와 같이 의미가 매우 허화된 것들만 보어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王红旗(1996) 분류법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는데, 먼저 '唱好'가 평가의 의미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작 이를 상태보어로 분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는 그 이유로 평가보어는 기대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데, '唱好'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보어가 아닌 상태보어라고 하였다. 그러나 평가보어가 기대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미를 나타내야만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며, 그는 단지 陆俭明(1990)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이다. '唱好'가 평가의 의미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면서도 정작 상태보어로 분류한 점은 모순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唱好'는 평가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그는 '喝慢, 谈清楚, 握紧, 看准' 등을 상태보어로 보고 있으나 이 역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평가보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분류법은 본인이 세운 기준에 무리하게 맞춘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분류 결과 역시 직관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상태식 술보구조와 결과식 술보구조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王红旗(1996)에 따르면 '见, 住, 着, 到' 등이 C를 충당

4) VC구조에서의 C부분만을 지칭할 때는 상태보어, 평가보어, 결과보어라고 했으며, VC구조 전체를 의미할 때는 상태식 술보구조, 평가식 술보구조, 결과식 술보구조라고 명명했다.

한 VC는 결과식 술보구조로 분류되는데, 그가 상태식 술보구조로 분류한 ‘砸破, 洗干净, 打败’ 등과 결과식 술보구조로 분류한 ‘听见, 买着, 钓到’ 등이 결과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상태식 술보구조로 분류하고 있는 ‘砸破, 洗干净, 打败’ 역시 전통적으로 결과성이 강한 술보구조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결과’라는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해 보인다. 또한 王红旗의 분류 역시 范晓(1985)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의미와 허화된 의미의 층위차를 포착하지 못하고 이원적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는 동작의 결과와 상태변화를 상태식 술보구조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상태식 술보구조에 평가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결과식 술보구조와 상태식 술보구조의 차이 역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류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동결식이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동결식이라는 용어는 ‘동작-결과’의 의미적 관계에서 비롯되었지만, ‘买贵, 教深, 睡迟, 看久’ 등 동결식으로 분류되는 많은 예가 동작-결과의 의미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둘째, 분류체계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분류법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본고는 기존연구의 이와 같은 문제점에 주목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원형범주이론과 VC구조

3장에서는 원형범주이론에 기반하여 중국어 VC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살펴본 기존 분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분류의 문제점은 어떠한 분류법을 취하더라도

분류결과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VC의 조합은 거의 무한대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VC구조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실 특정 기준으로 VC구조를 분류하는 것은 고전범주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VC구조에 대한 전통적 분류법 역시 고전범주이론이 가진 문제점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다.

王红旗(1996)는 VC구조를 삼분하고, ‘喝慢, 走快, 谈清楚, 握紧, 看准’ 등을 상태식 술보구조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동작결과나 수동자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는 평가식 술보구조의 정의에도 부합해 보인다. 또한 그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결과식 술보구조라 하였지만, ‘砸破, 喂肥, 喝醉’와 같은 상태식 술보구조나 ‘裁肥, 卖贱’와 같은 평가식 술보구조 역시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VC구조의 분류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원인은, 그 분류 방법이 고전범주이론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분류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원형범주이론에 근거해 중국어 VC구조를 분석해 보자.

Taylor(1989)에 따르면 범주화(categorization)란 “모든 고등 인지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다양성 속에서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⁵⁾이다. 범주화 이론은 크게 고전범주이론(classical theory)과 원형범주이론(prototype theory)으로 나뉜다. 고전범주이론은 그리스 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별 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 범주에 대한 인식으로, 다음 세 가지 원리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제1원리 : 범주는 필요충분 자질의 집합이다.

제2원리 : 범주는 분명한 경계를 갖는다.

제3원리 : 범주의 구성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⁶⁾

이러한 범주화 관점은 기하학이나 집합론 같은 분야에는 잘 적용되었지만,

5) 임지룡(1997:90)에서 재인용.

6) 임지룡(1997:9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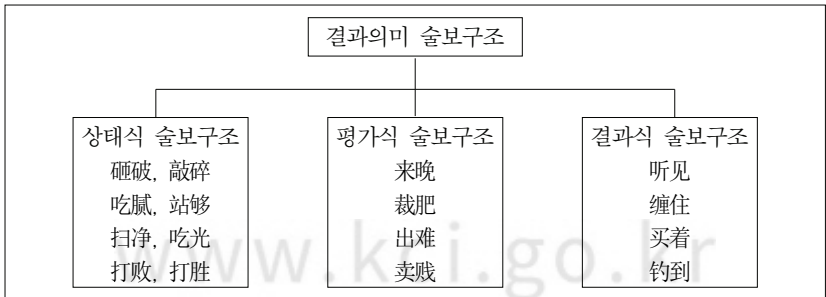
언어에는 그렇지 못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에서 고전범주이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고전범주이론의 이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원형범주이론이다. 원형범주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범주는 본질적 자질이 아니라 가족담음에 의해 각 구성원들끼리 연결된다. 또 범주의 경계는 고정적이고 엄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의 추가를 통해 범주가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범주의 어떤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 즉 범주의 구성원들의 자격은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VC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王红旗(1996)나 范晓(1985)의 분류 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이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VC구조를 구분하려 했기 때문이다. 고전범주이론과 원형범주이론에 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기준으로 이 세계를 완벽하게 분류할 수 없다. 하나의 범주 내의 구성원들은 특정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원형적인 것과 좀 더 덜 원형적인 것과 매우 덜 원형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VC구조를 관찰할 때 우리는 한층 쉽게 VC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VC구조에 대한 王红旗의 분류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의 분류결과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VC구조에 대한 王红旗의 분류⁷⁾



7)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王红旗가 진행한 분류 중 결과식 술보구조는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

여기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쪽의 성격을 모두 지닌 구성원들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개인의 직관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달라진다.

이제 원형범주이론을 통해 VC구조를 분석해 보자. 이를 위해 먼저 가장 원형적인 VC구조의 구성원은 어떤 속성을 지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V가 타동사이어야 한다. V가 자동사인 ‘来晚’, ‘睡迟’와 같은 경우는 VC구조의 원형적 구성원이 아니다. 고대 중국어의 자료를 통해서도 이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蒋绍愚(1999), 梅祖麟(1991)은 VC의 다양한 기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V가 타동사였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며, 志村良治(1984), 石毓智(2002) 역시 초기 VC구조가 ‘V+X+C’와 같이 목적어를 가지는 형태였다는 점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⁸⁾

둘째, V와 C의 관계는 동작-결과 혹은 원인-결과 관계이어야 하며, 그 관계가 높은 필연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동작과 그에 따른 의도된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초기 王力(1943/1985)의 용어 ‘使成式’가 이러한 VC구조의 사역성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된 사실이다. 그러나 ‘来晚’, ‘睡迟’와 같은 VC는 동작-결과 관계로 나타내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下输’의 경우 비록 동작-결과 관계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필연적이지는 않다. ‘下赢’의 존재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바둑을) 두고, 그 결과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동작의 의도된 결과라고도 할 수 없는데, 지기를 원하며 바둑을 두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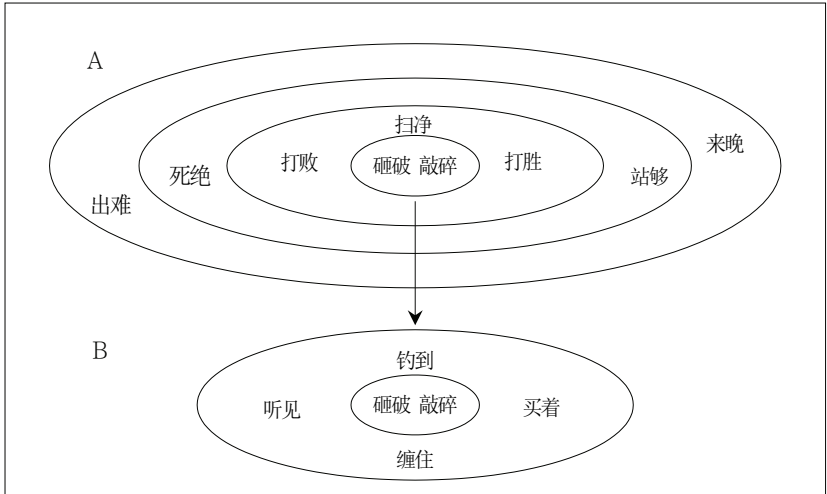
셋째, 결과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결과의 내용이 주관적일 경우, 평가적 요소를 가질 수 있다. ‘洗干净’의 경우, 동일한 상태에 대해서도 주관적 판단에 따라 ‘깨끗하다(干净)’고 느낄 수도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반면 ‘打破’의 결과 ‘깨지다(破)’는 깨지고 깨지지 않고의 판단이 분명한 객관적인 결과로 주관적 결과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王红旗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태식술보구조와 평가식술보구조와 같은 층위에 있을 수 없다. 이 그림은 이러한 문제점은 무시하고, 王红旗의 원래 의도대로 그린 것이다.

8) 吴有晶(2017:69-70) 제안용.

〈그림-2〉 VC구조의 원형구조



〈그림-2〉의 (A)를 보면, 가장 원형적인 구성원 '砸破, 敲碎'⁹⁾를 중심으로 각각의 구성원들이 방사형으로 위치한다. 가장 원형적인 구성원이 가진 속성과 비슷할수록 중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원과 원 사이에 선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 간의 상대적 위치만이 존재한다.

〈그림-2〉의 (B)는 VC구조의 또 다른 생태계이다. 레이코프(1987:556)에 따르면, 원형적 구성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범주에서, 그 범주의 특정 구성원이 다시 원형이 되어 또 다른 범주를 이룰 수 있다. 레이코프는 이를 영어의 'there' 구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5) There's Harry on the porch.

저기 현관에 해리가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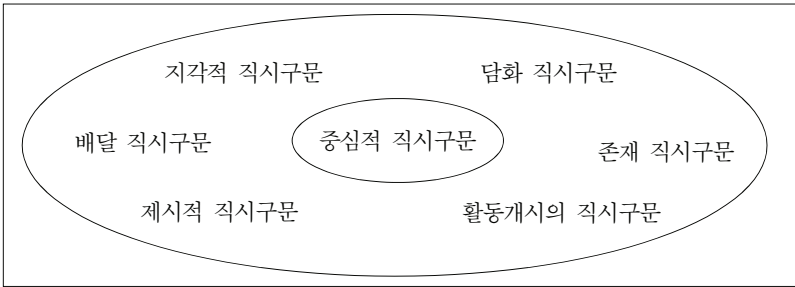
(6) There's a man on the porch.

현관에 한 남자가 있다.

9) '砸破, 敲碎'는 V가 타동사이고, V와 C의 관계가 원인-결과 관계이며, 그 결과가 객관적이다. 즉, 이들은 가장 원형적인 VC구조가 가져야 하는 속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예(5)는 ‘직시의 there 구문’이고, 예(6)은 ‘존재의 there 구문’이다. ‘직시의 there 구문’은 ‘중심적 직시 there 구문’을 바탕으로 원형범주를 이루는데, ‘존재의 there 구문(존재 직시구문)’은 ‘직시 there 구문’의 한 구성원이다. 직시 there 구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⁰⁾

〈그림-3〉 직시 there 구문의 원형구조



‘존재의 there 구문(존재 직시구문)’은 ‘직시 there 구문’의 구성원이지만, 다시 독립적인 범주를 이룬다. 이것은 특정 범주의 구성원이라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 개별적인 또 다른 범주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존재 직시구문’이 형성하는 범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¹⁾

10)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Lakoff 1987 참고)

중심적 직시구문 : There's Harry with his red hat on. (저기 해리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군)

지각적 직시구문 : There's the beep. (삐 소리가 나는군)

담화 직시구문 : Now there's a good idea. (지금 것은 좋은 지적이군)

존재 직시구문 : There's a baby on the way. (아기가 태어납니다)

활동 개시의 직시구문 : There he goes, meditating again. (또 저 사람 명상이 시작되었군)

제시적 직시구문 : There in the alley had gathered a large crowd of roughnecks. (그 뒷골목에 폭력배들이 다수 모였었다.)

배달 직시구문 : There you are—one pizza with sausage and mushrooms. (자, 여기 소세지와 버섯의 피자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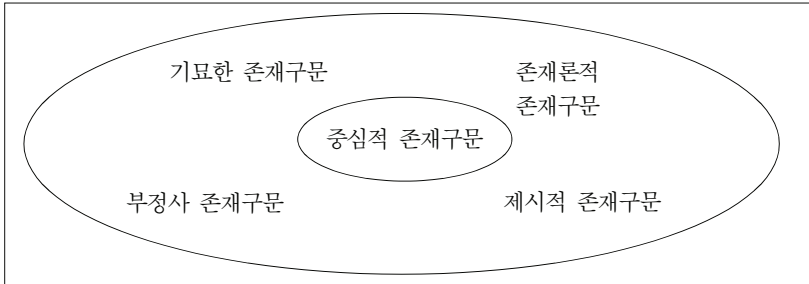
11)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기욱 옮김(1995)에서 인용)

중심적 존재구문 : There's a masked man outside. (밖에 복면을 한 사나이가 있다.)

기묘한 존재구문 : There's a man been shot. (한 사나이가 총에 맞았다.)

존재론적 존재구문 : There IS a Santa Claus. (산타 클로스는 존재한다.)

〈그림-4〉 존재 직시구문의 원형구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존재 직시구문’은 중심적 존재구문을 중심으로 하나의 독립적 범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특정 범주의 구성원은 스스로가 원형이 되어 또 다른 범주를 형성할 수 있다.

본고는 바로 이 또 다른 생태계에 여타의 VC 부류와 의미적 층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허화된 보어, 즉 ‘听见, 买到’가 위치한다고 본다. 동작-결과의 VC 구조가 또 다른 원형이 되어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고 상적 자질을 나타내는 허화된 VC구조의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¹²⁾ 이를 통해 기존의 분류법에서 포착하지 못한 动态关系(范晓의 분류), 결과보어(王红旗의 분류)의 변별적 특징을 손쉽게 설명할 수 있다.

요약컨대, 원형범주이론과 범주의 생태계에 대한 레이코프의 견해를 통해 중국어 VC구조를 이해한다면 개별 구성원들이 결과적 의미를 나타내는지, 상태적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다룰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류기준의 이원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제시적 존재구문 : There walked into the room a tall blond man with one black shoe. (방에 들어온 것은 까만 신을 한 짝만 신은 키 큰 금발의 사나이였다.)

12) 사실 动态关系 역시 비단 완성의 의미 외에도 기시와 같은 다양한 상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또 다른 생태계의 형성을 통해 이에 대한 설명 역시 가능할 것이다.

(1) 秋风吹起的时候, 一种金黄的灿灿的光彩映照四野, 给秋天的萧索增加了一种响亮与丰富。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황금색 찬란한 빛이 사방을 비추며 가을 하늘의 스산함에 생동과 풍요로움을 더했다. (CCL)

4. VC구조의 다의성 및 동기화

VC구조는 생산성이 크고, 그로 인해 다의적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VC구조의 다의적 의미를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다르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결과', '상태', '평가'로 삼분하기로 한다.¹³⁾

VC구조는 왜 다의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4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무한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형식은 한정적이다. 이러한 비대칭성 때문에 언어형식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 제한된 언어형식으로 무한한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언어형식이 하나의 의미만을 나타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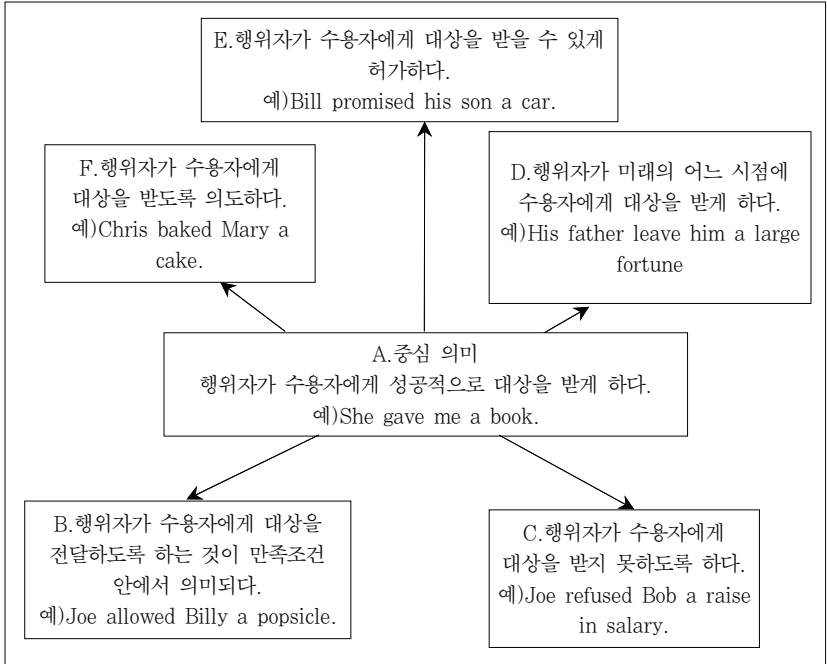
하나의 언어구조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실례를 보자. 먼저 영어에서의 이중타동구문(ditransitive construction)이다. Goldberg(1995)는 영어의 이중타동구문이 중심의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다의성을 나타냄을 논증하였다. 영어 이중타동구문은 하나의 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구조로 행위자, 수용자, 대상이라는 세 개의 참여자를 가진다. 그리고 그 중심의미는 '행위자로부터 수용자로의 대상의 전달'이다. 영어 이중타동구문은 이 중심의미 외에도 '행위자가 수용자에게 대상을 받도록 의도하다', '행위자가 수용자에게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다', '행위자가 수용자에게 대상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Goldberg(1995)에 따르면, 영어 이중타동구문은 'S+V+O1+O2'라는 형식과 '행위자로부터 수용자로의 대상의 전달'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식과 의미의 집합이다. 이것은 S, V, O1, O2라는 각각의 자리에 특정 어휘가 들어간 실제 문장들보다 추상적이며, 그 자체로 생산력을 가진다. 이러한 형식과 의미

13) 이 같은 분류는 논의의 편의를 위함이지, VC구조에 대한 본고의 분류법이 아니다. 본고는 특정 기준에 의해 VC구조를 삼분, 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과, 상태, 평가는 VC구조가 나타내는 대표적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의 집합이 생산력을 가지는 것은 한정된 언어 형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해야만 하는 인간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그림-5〉 영어 이중타동구문의 다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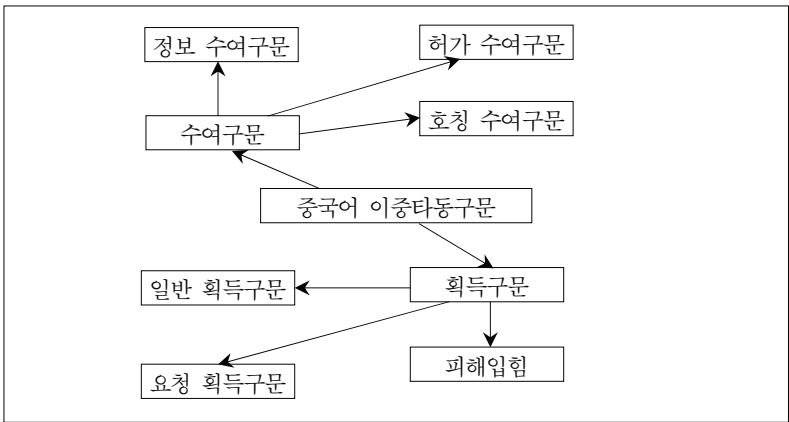


영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이중타동구문 역시 그 자체로 추상적 구문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다의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영어에 비해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은 더 풍부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영어 이중타동구문의 중심의미는 '행위자로부터 수용자로의 대상의 전달'이라고 한 바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어 이중타동구문에서는 대상의 이동이 행위자로부터 수용자인 일방향이다. 반면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은 대상의 이동이 쌍방향이다.

- (7) 我送了她一件毛衣。
나는 그녀에게 스웨터 한 벌을 선물했다.
- (8) 他偷了张三300元。
그는张三에게서 300위안을 훔쳤다.

예(7)에서 대상(theme) ‘一件毛衣’는 행위자인 ‘我’에게서 수용자인 ‘她’로 이동하였다. 반면 예(8)에서는 대상 ‘300元’이 행위자인 ‘他’에게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김보영(2011)은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의 다의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6〉 중국어 이중타동구문의 다의성¹⁴⁾



중국어의 존현구문(existential construction) 역시 다의적이며, 동일한 원리로 설명된다. 존현구문은 ‘NL(장소어)+VP(술어)+NP(존재대상)’의 구조를 가지며, ‘어떤 장소에 대상이 존재함’이라는 중심의미를 가진다. 존현구문은 이러한 중심의미에서 ‘어떤 장소에 대상이 출현함’과 ‘어떤 장소에 대상이 소실함’이라는 의미로 확장된다.¹⁵⁾

14) 김보영(2011:51)에서 일부 수정.
15) 존현구문의 다의성 및 의미확장에 대해서는 남양우(2016) 참고.

- (9) 桌子上放着一本书。(존재)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다.
- (10) 家里来了一位客人。(출현)
집에 손님 한 분이 오셨다.
- (11) 村里死了一位老人。(소실)
마을에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언어구조는 중심의미에서 확장되어 다의성을 가진다. 그리고 해당 구조에서의 중심의미는 그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이며, 이 때문에 가장 먼저 생성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VC구조 역시 이러한 원리를 따라 발전되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영어의 이중타동구문, 중국어의 이중타동구문, 중국어 존현구문 등은 문장단위의 구문으로, 이들의 구문생산력은 많은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VC구조는 문장단위가 아닌 구 단위이지만 역시 구문(construction)이다. 'VC'라는 특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체만의 구문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생활에서 그 사용 빈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이다.¹⁶⁾ 이 구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의 구문으로 안정화된 뒤, 언어형식의 유한성과 언어사용자들의 의미 다양성에 대한 요구 간의 비대칭성 때문에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본고는 VC구조 중 결과용법이 가장 먼저 생성된 뒤 상태용법, 평가용법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VC구조의 기본 속성은 사역성과 상태변화인데, 이것과 가장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결과성이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초기 VC구조의 동사는 타동사만 가능했다. 王力가 VC구조를 '使成式'라고 한 것은 VC구조가 사역성을 가지기 때문인데, 사역성은 동사의 성질에서 기원한다. 원형적 타동사는 강한 사역성을 가진다. 행위자

16) Goldberg(2006)에서는 Goldberg(1995)에 비해 구문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는데, '높은 사용빈도'를 가진다면 예측가능 하더라도 구문으로 볼 수 있다고 수정하였다. 구문에 대한 Goldberg(1995)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어떤 C가 형식과 의미의 짝(Fi, Si)이고, 그 Fi의 어떤 양상, 또는 Si의 어떤 양상이 C의 구성 성분이나 이미 확립된 다른 구문으로부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C는 구문이다."(Goldberg 1995:4)

(agent)는 동작을 통해 대상(theme)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대상은 물리적 이동, 혹은 상태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성과 상태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VC구조에서의 결과용법이다.

문장의 사역성은 Levin & Rappaport(1995)의 어휘개념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¹⁷⁾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x DO SOMETHING] CAUSE [y BECOME STATE]

‘[x DO SOMETHING] CAUSE [y BECOME STATE]’라는 어휘개념구조는 x의 어떤 행위로 인해, y의 상태가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어휘개념구조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구조도 표현한다. 사건구조는 단순사건구조와 복합사건구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복합사건구조의 경우 특정 행위를 통해 대상이 위치변화를 겪거나 상태변화를 겪는다. ‘打破’의 예를 들자면, “张三打破了一个杯子”라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张三 DO SOMETHING(打了)] CAUSE [杯子 BECOME STATE(破了)]

변항 ‘x’에 ‘张三’, 변항 ‘y’에 ‘杯子’가 들어간 이 문장은 원소술어 ‘CAUSE’와 ‘BECOME’을 통해 이 문장이 가지는 사역성을 잘 보여준다.

둘째, VC구조의 세 가지 용법 중 결과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경험적이라는 점이다. 레이코프(1987)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와 신체적 경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복적 신체적 경험은 언어구조에 반영된다. 우리는 반복적 경험을 통해 때리면 깨지고(打破), 먹으면 배부르고(吃饱), 달리면 지치고(跑累) 하는 것을 안다. 이러한 동작-결과의 경험이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것이 중국어의 VC구조라고 할 수 있다.

17) 어휘개념구조는 논항구조와 더불어 어휘표시의 한 방법이다. 어휘개념구조는 동사의 의미가 내부구조를 갖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며, 원소술어, 의미범주, 정향으로 구성된다. 시정곤 등(2000) 참고.

하나의 구조가 생성되고 안정화되어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그 용법이 확대된다. 처음에 동작-결과의 의미로 사용되던 VC구조에 점차 다양한 단어들 사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처음에는 동작-결과의 의미와 크게 가까웠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다양한 의미의 단어들 VC구조에 사용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동작-결과의 의미와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처음의 동작-결과의 의미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의미의 VC구조가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다의어를 통해 잘 드러난다. 다의어는 중심의미에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된다. ‘손’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손’은 다음과 같은 다의어를 지닌다.

- (12) 손: ①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손과 발”)
 ②일손 곧 사람(“손이 달리다.”)
 ③마음(“손이 맞다.”)
 ④아량(“손이 크다.”)¹⁸⁾

‘손’은 ‘손→사람→마음→아량’의 연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의미 ②는 ①과 의미적으로 가깝다. 의미 ③은 ②와 의미적으로 가깝다. 마찬가지로 의미 ④는 ③과 밀접하다. 한편 의미 ①과 ④는 의미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러한 의미연쇄(meaning chains)는 비트겐슈타인의 ‘가족담음’ 은유와 일치한다.¹⁹⁾ 의미연쇄 구조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abc) \rightarrow B(bcd) \rightarrow C(cde) \rightarrow D(def)^{20)}$$

위 도식은 A, B, C, D 중 인접한 것 사이에는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모든

18) 임지룡(1997:234)에서 재인용.

19) 임지룡(1997:233)에서 인용. 범주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는 공통된 자질은 가족에 없다.

20) 임지룡(1997:234)에서 인용.

구성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과’와 ‘상태’는 다른 것 같지만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어의 VC 구조는 시간순서원리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항상 동작이 먼저 선행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나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문체는 결과와 상태가 종종 구분하기 모호하다는 데 있다. VC구조에서도 결과인지 상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13) 他逃跑了七次, 都被别的部队拉了去。老全说他不想再跑了, 他说: “我逃腻了。”²¹⁾

그는 일곱 차례 도망쳤지만 모두 붙잡혀 돌아왔다.老全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도망이라면 지긋지긋해”라고 말했다.

(14) 凤霞在田里, 一看到这种场景, 又看呆了。

凤霞은 밭에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자 또 멍해졌다.

(15) 家珍就笑盈盈地端出四样菜, 摆在我面前, 又给我斟满了酒, 自己在我身旁坐下来待候我吃喝。

家珍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내 앞에 네 가지 요리를 차려 놓았다. 그리고 내게 술을 가득 따르고 자기는 내 옆에 앉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기다렸다.

위 예문에서의 ‘逃腻’, ‘看呆’, ‘斟满’은 결과로 볼 수도 있고 상태로 볼 수도 있다. 결과 혹은 상태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打破’처럼 사역성과 상태변화의 성격을 가진 결과용법의 VC구조가 널리 사용되면서, ‘逃腻’, ‘看呆’, ‘斟满’와 같은 용법으로 확대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VC구조의 사용이 더 확대되고, 보어 부분에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사용되게 되면서 VC구조는 평가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상태와 평가 역시 종종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16) 我倒觉得上学只要把书念好就行, 穿不穿鞋有什么关系。

학교를 다니는 데 공부만 잘 하면 됐지, 신발을 신고 안 신고가 무슨 상

21) 예문 (13)-(18)은 소설 《活着》의 문장임.

관이야.

(17) “少爷，看清楚了吗？这可都是你签字画押的。”

도련님, 똑똑히 보셨죠? 도련님이 서명하고 수결한 것입니다.

(18) 可能是牛放慢了脚步，老人又吆喝起来。

아마도 소의 걸음이 느려지자, 노인이 다시 고함을 지르는 것이리라.

위 예문에서의 ‘念好’, ‘看清楚’, ‘放慢’ 역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이들은 상태로 볼 수 있지만, 평가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때문에 상태 혹은 평가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박정구(2003)에서도 비슷한 견해가 발견된다. 그에 따르면 ‘听清楚’는 정도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19) a. 你听清楚点儿！

분명하게 좀 들어라.

b. 我已经听清楚了。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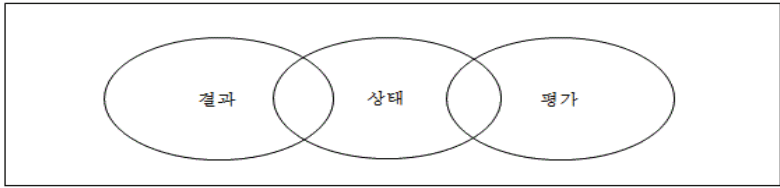
박정구(2003)에서의 ‘정도’는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다음 문장을 정도와 결과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说多’같은 경우 전형적 평가의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VC구조에서의 의미가 연속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20) 这个孩子今天话说多了。

이 아이는 오늘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때 결과, 상태, 평가는 서로 연쇄적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7〉 결과·상태·평가용법의 연쇄구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의미연쇄구조와 동일하다. 이것은 언어에서 낱말 층위는 물론 구 층위까지 의미연쇄구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 나오는 글

본고는 일반적으로 동결식(动结式)이라고 부르는 중국어의 VC구문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작-결과'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동결식은 실상 많은 부분 결과의미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기존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고찰 없이 형식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결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은 후에, 의미적 기준에 따라 몇 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의미적 기준에 의한 분류로는 VC구문이 나타내는 의미적 다양성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존의 분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본고는 인지문법에서의 원형범주이론을 적용하여 중국어의 VC구문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 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어의 VC구문이 원형적 구성원을 중심으로 원형범주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원형범주이론을 통해 VC구문을 설명하면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국어 VC구문은 다의성을 가진다. 이러한 다의성을 구문다의성을 통해 살펴해보았다. 영어 이중타동구문, 중국어 이중타동구문, 중국어 존현구문 등 단문 단위의 구문들이 중심의미를 바탕으로 구문다의성을 가지는 것처럼, 구 단위

인 VC구문 역시 구문다의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VC구문은 결과의미를 중심으로 상태의미, 평가의미로 확장되었는데, 이것은 구문이 가지는 생산력 때문이다. 이러한 구문 생산력은 한정된 언어형식으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

< 參考文獻 >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이론》, 서울: 박이정, 2013.
- 김보영, 《구문문법의 관점으로 본 중국어 이중타동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남양우, <동태존재문에 대한 인지적 해석>, 《중국어문논총》, 2016, 73.
- 박정구, <동보형식의 이원적 체계에 대한 고찰>, 《중국학보》, 2003, 47.
- 시정곤 등, 《논항구조란 무엇인가》, 서울: 월인, 2000.
-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1997.
- 范晓, <略论 V-R>, 《语法研究和探索(3)》,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85.
- 陆俭明, <“VA了”述补结构语义分析>, 《汉语学习》, 1990, (1).
-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1980.
- 马真·陆俭明, <形容词作结果补语情况考察(二)>, 《汉语学习》, 1997, (4).
- 施春宏, 《汉语动结式的句法语义研究》,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8.
- 王红旗, <动结式述补结构的语义是什么>, 《汉语学习》, 1996, (1).
- 王力, 《中国现代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1943/1985.
- 吴有晶, 《致使/非致使交替以及反致使化研究——以现代汉语动结式为例》,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2017
- Lakoff, G.,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이기욱 옮김, 《인지 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1995)
- Levin, B. & Rappaport Hovav, M.,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IT Press, 1995.
- Goldberg, A., *Constructions at 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Abstract >

A Cognitive Grammatical Approach to VC Constructions

Nam, Ryang Woo · Oh, Youjeong

This paper will look at the relationship and categorization of different VCs, from which we propose that looking at these issues through the lens of Cognitive Grammar, specifically that of Prototype categorization theory and Construction Grammar, can provide more adequate explanations. Previous studies have solely used ‘meaning’ as the criteria for categorizing VCs into: resultative, degree(state), evaluation, etc. However, it will be shown that this approach, which is based on classical categorization theory, can neither categorize all the different VCs clearly, nor can it provide precise standards for categorization of VCs. Based on Prototype categorization theory, we suggest that the prototype VC has the following three features: V is a transitive verb; V and C have high intentional inevitability; C indicates objective result. VCs that have these three features, such as ‘**砸破, 敲碎**’, are prototypes of VCs and they denote resultative meaning. As these are central members, all VCs are structured radically including degree(state), evaluation, etc. As for the VCs that denote aspectual meaning, such as ‘**到, 住**’, they become members of a new eco system made by prototypes of VCs based on Lakeoff(1987). Additionally, according to Construction Grammar, we assume that VC is a construction, and explain that different VC constructions form a ‘meaning chain’, and this can give an appropriate account for the polysemy of VC constructions.

Key words: VC, prototype, categorization, polysemy, Prototype categorization theory, Construction Gramma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 28.	2018. 3. 9.	2018. 3. 16.	2018. 3. 20.	2018. 3. 31.